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재단법인 청관장학회·청석장학회

제 196 호

2018년 5월 15일

발행인 : 곽 병 선

편집인 : 이 창 득

Home page :
www.snueaa.or.kr

E-mail :
snueaa@hanmail.net

(우)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충정로 3가, 피어리스 아파트) 전화 : (02)720-8116, 8120 FAX : (02)720-8117

곽병선 동문 제40대 동창회장 취임

동창회는 2018년 3월 8일 제10회 청관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연이은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곽병선 동문(교육 66)을 제40대 동창회장으로 선임하였다.



▲ 곽병선 신임회장 취임 인사



▲ 정기총회 기념 촬영

취임인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동창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40대 회장으로 선임을 받은 곽병선입니다. 동창회장이라는 역할이 저에게 어울리지 않아 처음엔 망설여짐이 없지 않았으나, 누군가는 맡아야 할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동창회의 뜻을 받아드렸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임기 동안 동창회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동문님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동문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많이 참여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 학과 동창회와의 유대와 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에 회원님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많이 호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창회가 있기까지 그동안 동창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선후배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동창회 임원으로 남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사대 동창회 회장 곽병선 올림

교육에서 답을 찾자!

방재욱 (생물 68)
충남대 명예교수
자유칼럼그룹 칼럼니스트

연일 마스크에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뇌물 수수와 횡령, 채용비리, 미투(#Me Too)와 연계된 엽기적 성추문 등은 모두 청렴사회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솔선해서 청렴하고 근접해야 하는 정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등에 만연해 온 부패문화가 어떻게 하면 청렴문화로 바뀔 수 있을까. 이는 제도 개선만으로 바로 잡을 수 없는 과제로 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百年之大計)’로 내세우며 추진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 또는 교육혁신이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이 혁신되지 못하고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육 전담 부처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며 중앙정부의 11개 부처 중 하나로 출범한 ‘문교부’가 1990년에 ‘교육부’로,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 과학기술부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이 되었다. 2013년에는 교육과 과학기술부가 다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되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되어온 교육 전담부처가 23년 전의 교육부로 다시 환원된 것이다. 이렇게 정치성이 농후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국가의 교육 발전에 얼마나 기여한 것일까. 그 답은 발전이 아니라 교육의 정체이다.

국민들 각자가 나름대로 교육문제에 대해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문화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의 빠른 성장과 발전에 높은 교육열이 기반이 되어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못하다. 또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해 교육 정상화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그의 실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온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제안이지만 교육개혁을 위해 정부는 정치 논리에 입각한 법과 제도의 변경에 앞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 전환을 우선하는 체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부처 장관의 재임 기간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1948년 문교부가 설립되어 교육부로 바뀐 1990년까지 장관직을 지낸 사람은 30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1년 5개월 정도이다. 그리고 교육부로 바뀐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의 장관 수는 12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69년 동안 58명이 교육부처 장관에 임용되어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이다.

이렇게 교육전담 부처의 명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편익에 따라 계속 바뀌고,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조금 넘는 여건 하에서 과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의미를 실을 수가 있을까.

선진국들은 수백 년에 걸친 정치혁명과 개혁을 통해 국민 계몽과 교육문화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체제와 질서의를 확립하여 올바른 교육문화를 수립해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15 광복 후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민주적인 정치혁명과 의식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의 장으로 나와 제대로 된 교육문화 정립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교육개혁의 주목적은 교육의 대중화, 교직의 전문화,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교육 행정과 재정의 효율화 등을 통해 교육의 모든 국면을 혁신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

정상적인 교육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은 우선 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학교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키워 나가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다. 학교 교육의 참다운 본질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독창성을 발견하여 스스로 계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사람답게 대우를 받으며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교육을 위한 교직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로 사회와 부모의 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참다운 인성을 키우는 장이 되어야 하지만 부모의 이혼에 따른 외로운 아이들과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주요 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명문대학(?)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이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학의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 여겨진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을 교육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으로 특성화하고, 특성화 대학을 지역별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제안해본다. 특성화 대학들이 지역별로 분산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특정 대학들을 향한 입시경쟁 완화로 사교육비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당리당락을 앞세운 정치적 판단이나 관 중심의 문제 덮기 그리고 언론의 편파보도 등의 잘못된 교육문화 인식으로 행해져온 관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사회복지와 안전 그리고 사회 갈등해소와 국민 소통을 위한 정책의 실천을 위한 답은 바로 올바른 교육문화 조성에서 찾아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거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답도 교육의 정상화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 교육부의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부를 입법부나 사법부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올바른 교육혁신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능력이 있는 교육전문가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고, 더 나아가 전문능력이 인정되면 차기 정권까지 연임되어 교육혁신을 바르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교육문화의 정립도 제안해 본다.

會長 動靜 (2018. 1. 1 ~ 3. 31)

18.01.05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참석
18.01.29	동창회 이사회 주관
18.02.09	동창회 신년인사회 주관
18.02.23	청관장학회 이사회 주관
18.03.08	정기총회 주관
18.03.16	총동창회 정기총회 참석
18.03.29	청관장학회 참석

동창회 來訪 人士 (2018. 1. 1 ~ 3. 31)

강의정(영어 61)	전 여의도고 교장, 본회 감사, 강남구청교육발전 자문위원, 청석장학회 이사장
강현재(국어 72)	전 경기과학고 교장
김경수(국어 63)	전 중앙대 교수

김범기(물리 66)	전 한국교원대학대학 원장 본회 문화전략부 부회장
김영애(생물 64)	전 대치중 교장, 본회 조직부 부회장
박주형(국어 2005)	모교 국어교육과 조교
변주선(영어 60)	대림 성모병원 행정원장, 본회 36~37대 회장 한국 걸스카우트지원재단 이사장
신정숙(화학 67)	전 세종고 교장, 본회 창조기획부 부회장
엄영주(생물 66)	전 등촌고 교장, 본회 대외협력부 이사
우한용(국어 68)	서울대 명예교수
이규석(지학 66)	한국 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 명예회장 본회 대외협력부 부회장
이준순(국어 76)	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 원장 본회 홍보부 부회장
조상주(국어 84)	경동고 교감
최기숙(체육 65)	전 자양고 교장, 본회 여성부 부회장
최돈형(물리 68)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최안기(지리 70)	전 용산고 교장, 본회 창조기획부 이사

반송되어 오는 회보는 재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2018년 동창회 임원단 신년교례회



동창회 임원단 신년교례회가 2월 8일(목) 오후 4시 동창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 3층의 마루샤브(충정로점)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동창회 임원진인 동창회 고문, 회장, 각 업무 부서의 부회장과 상임이사, 청관장학회와 청석장학회의 이사, 청관대상 운영위원, 그리고 학과 동문회장과 모교의 학장 등 24명이 참석하였다. 이날은 동창회의 2017년도 주요 활동 내용과 결산(안) 심의,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검토,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우리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동문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동창회 임원단 특히, 2018년에 새로 선임된 학과 동문회장들에게 동창회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높았다.

제10회 2018년도 청관대상 수상 후보자 심사



제10회 청관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변주선)가 2월 23일(금) 오후 2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청관대상 후보로는 사도상에 윤웅섭(수학 61)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학술상에 차경수(사회 55) 서울대 명예교수, 공로상에 박진홍 전 전문대 교수가 추천되었다. 추천서류들을 신중하게 심사하여 사도상의 윤웅섭과 학술상 차경수 후보는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공로상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후보가 된 박진홍 교수는 동창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보다는 1994년도에 학술지 JAMC를 창간하고 세계적인 수

준으로 위상을 드높인 점, 2008년부터 독일의 세계적 출판사 Springer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면서 발간을 지속한 공적 등이 학술상에 더 적합하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뜻에 따라 학술상으로 시상하기로 결정하고 공로상은 해당자 없음으로 정했다. 시상식은 3월 9일 정기총회와 함께 한다.

제1차 청관장학회 이사회 개최

제1차 청관장학회 이사회가 지난 2월 23일(금) 오후 3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제1학기 장학금과 2017년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제1학기 장학금으로 5명에게 12,75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재원은 강신주(사회 51) 동문이 2017년도 송년회에서 기부한 1,000만원과 허현호(수학 67) 동문이 2017년도 제2학기에 기부한 1,500만원 중 잔액 275만원이다. 이날 심의한 2017년도 결산 주요 내용은 교육청에 3월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2018년도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 개최



2018년도 청관대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가 지난 3월 8일(목) 오후 6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는데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제1부에서는 청관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청관대상은 사도상에 윤웅섭(수학 61,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동문, 학술상에 차경수(사회 55, 서울대 명예교수) 동문, 박진홍(수학 61, 전 전문대 교수, 현 JAMC 편집장) 동문이 수상하였다. 제2부 정기총회에서는 동창회의 2017년 주요 활동 내용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고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제3부에서 신임회장과 신임감사를 선출하였다. 신임회장으로 광병선(교육 66,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동문, 감사는 신정숙(화학 67, 전 세종과학고 교장) 동문과 설경수(국어 81,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 동문을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다.

2018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여식



2018년도 제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3월 9일(금) 11시에 사범대학 10-1동 101호에서 열렸다. 장학금 지급 규모는 청관장학회 5명 12,751,000원, 청석장학회 2명 3,424,400원 그리고 천재교육 장학생 20명 51,790,000원을 수여하였고 동창회에서 이시우(국 71) 동창회 상임부회장·청관장학회 이사, 강의정(영어 61) 청석장학회 이사장, 최기숙(체육 65) 청관장학회 감사, 김영애(생물 64) 청석장학회 감사, 신정숙(화학 67) 청관장학회 이사가 참석하였다.

제2차 동창회 이사회 및 청관장학회 이사회 개최

지난 3월 29일(목) 11시 동창회 사무실에서 2018년도 제 2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 날 이사회에서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에 대한 평가와 동문친선등반대회 준비(안)를 심의·의결하였다.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시상식과 정기총회의 진행시간이 길다는 의견이 많아 수상 소감은 동창회보에 게재하기로 하고 예·결산(안)의 심의·의결과 동창회 활동 보고와 계획도 간략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좋은 평가를 받은 전문 촬영 기사 초빙은 내년에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문친선등반대회 준비 건을 협의하여 모교에 노천강당 대관신청과 내년에 진행 될 등반대회 행사에서 동창회 발전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로 하였다. 청관장학회 2차 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동문들이 찬조한 기부금의 교육청 승인 신청건과 이규택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이사 선출과 후임 이사장 선출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월 22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이규택 이사장 후임으로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 후임 이사장은 광병선 동문을 선출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기로 의결하였다.

광병선 신임회장의 약력

- ◆ 청주사범졸, 교육과 23회 졸, 마케트대학원 수료, 초중학교 교사 역임
-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6년 재직(연구원으로 출발하여 원장으로 퇴임), 홍익대, 경인교대 초빙교수, 경인여대총장, 한국교육학회장,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 국민포장, 국민훈장목련장, 마케트대 우수동문상, 피터브라이스 교육상, 청주교대 자랑스러운 교대인상 수상.
- ◆ 현재 인천대 석좌교수 재임 중

2018년도 제10회 청관대상 수상자



사도상 수상자
윤웅섭 (수학 61)



학술상 수상자
차경수 (사회 55)



학술상 수상자
박진홍 (수학 61)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61入)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잃었다 찾은 고향 같은 회사

이 기 태 (불어 59)

시인, 수필가

스타인터내셔널 및 베스텐북스 대표

누구에게나 그림자처럼 아련하게 따라다니는 추억 속 인생의 고향이 있다면 격렬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옛 '직장고향'도 있음을 문득문득 깨닫게 된다. 직장의 고향은 과연 어디일까? 나의 경우 하도 커리어를 이곳저곳 여러 번 바꾸어서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다. 나라도 이 나라 저 나라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에도 무엇보다 최고로 몸 바쳐 일했던 직장 그것도 현재의 내 회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랜 기간 일했던 직장, 거기가 바로 60, 70년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참치왕국 고려원양어업주식회사(高麗遠洋)이다. 70년대 선박수만도 130여척이었고 게다가 세계의 어느 참치회사도 가져보지 못한 2만 9천 톤짜리 병원과 헬리콥터장까지 갖춘 공모선(工母船)을 가진 세계에서 제일 큰 참치 어업회사였다. 여기가 나의 가장 추억에 남는 그리고 그리움을 주는 직장고향이다. 직장 고향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만의 신조어(新造語)이지만 나는 항상 이 말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

당시 고려원양 회사의 벽에 붙은 상황판을 보면 고려원양 선박이 오대양에서 조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넓은 바다 여기저기에서 조업하고 있었다.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여기에서 11년간 몸담고 일했으니 가히 나의 직장고향이라 안할 수가 없다. 물론 여기 말고도 나의 또 다른 마음의 고향은 여러 곳이 있다. 한국에는 내가 첫 정을 준 직장인 고등학교, 떠나기 아까웠던 정든 유한양행이 있고, 별 상식도 없이 경영에 뛰어들었던 태국 방콕에 맨하탄 호텔(Manhattan Hotel), 그리고 방콕에서의 호텔경영 덕분에 미국에서도 경영에 참여했던 L.A에는 올림피아호텔(Olympian Hotel)이 있고, 변호사 시험만큼이나 까다롭다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따고 미국인들과 섞여 재미있게 일했던 미국 굴지의 부동산회사 Tarbell Realtors와 미국에 내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Keystar International이 있다.

하지만 역시 나의 제1의 고향은 내가 주재하거나 출장을 다니며 일하던 고려원양이 아닐 수 없다.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마



다가스카르, 가나, 수리남, 트리니다드 등 카리비안 연안국들에서 주재하거나 출장을 다니며 청춘을 불사른 이 회사는 지금도 나의 영혼이며 몸이라 생각될 정도로 직장고향이다. 이렇게 큰 선박 세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지사망은 크지 않았다. 다만 일본회사들과의 거래관계로 세계 어디 낮은 데를 가도 세계 지점망이 거미줄 같은 우리의 대리점 역할을 하던 마루베니, 미쓰이, 도요쿠 중에 어느 한곳에 텔렉스(Telex)로 통지하거나 전화 한 번하면 공항, 호텔간 자동차 서비스와 식사 한 두 번은 기본으로 행복한 대우를 받으며 다닐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가 80년대 들어 이 지구상 오대양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나는 1979년에 이 회사를 떠났고 미국에서 호텔 경영인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다. 직장고향이 없어졌기에 가슴이 텅 비게 되었다. 그 허전함과 안타까움은 표현할 길이 없었다. 몸은 떠났지만 한국에 오면 늘 다시 방문하고 계속 변명하기를 기원하던 회사가 없어지다니! 나의 상실감은 견잡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14년간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견을 잃고 많이도 울었다는 여성 수필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의 그 상실감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지금도 원양어업 소리만 들어도 가슴 벅차고 힘이 솟구친다. 이런 마음의 반영으로 한국 일간지에도 원양어업 관련 글들을 몇 번 올린 적이 있다. 그리고 2006년 4월 동원수산(東源水産)의 동원 628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어 3개월이 지나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금은 고인이 된 그 회사 왕윤국(王允國)회장을 방문하였다. 내가 현지에 가서 혼신의 노력과 기지로 교섭하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해 내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극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그 회사 계획이 따로 있어 고맙다는 답으로 대신 되었지만 여하튼 나와는 관계도 없는 일이요 회사인데



그만큼 나의 원양어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었다. 그 열정의 열매로 나는 “바다, 그 끝없는 유혹” - 제1세대 해외 주재원 보고서- 라는 책을 2012년에 세상에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속히 세상에 알리고픈 생각에 그 해 여름 몹시도 더웠는데 더위를 저술로 식히며 사무실이나 서재에 앉아 7, 8월 두 달 만에 책을 완성하여 출판하였다. 게다가 이후 2년 연속 두 권의 책을 더 쓰게 된 것도 다 그 덕택이었다.

나의 고향 상실의 애석함을 달래기라도 하듯 지난 2018년 1월 어느 날 현재 한국최대의 수산회사인 동원산업(東遠産業) 주식회사(사장 이명우)에서 세미나 특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얼마나 기뻐는지 망설임 틈도 없이 회사가 원하는 때와 시간에 아무 때나 좋다고 선뜻 승낙하였고 바로 지

난 2월 2일 본사의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강당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부산지사 직원들은 영상으로 청취하게 되었다. 주제는 ‘원양어업은 영원하다’였는데 모든 이들이 종이 소리 하나 안 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감동을 받고 놀랍도록 큰 보람을 느꼈다.

여기서 내가 고향을 찾은 기분을 느꼈다. 고려원양은 없어졌지만 고려원양에서 수산부장을 지냈던 김재철 회장이 세운 동원산업이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서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느꼈으며 무엇보다도 희망을 보았다. 내가 직장고향을 잃었었지만 이제 다시 제2의 직장고향을 찾은 것 같아 말 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동원산업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원양어업이여 영원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청관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게 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16학번 이수진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려 했었는데, 학비, 생활비 그 외 여러 비용 등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학과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되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줄어든 아르바이트 시간만큼 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여러 활동들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좀 더 발전된 ‘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시간에 쫓기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교에서 열리는 동아리 소개제에 참석하여 속하고 싶은 동아리에 이름만 적어 놓고 오곤 하였으나, 매번 아르바이트 시간과 동아리 시간을 맞춰보며,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보며, 해보고 싶었던 동아리 활동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것이 하고 싶었던 것보다 먼저였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동아리나 학회, 봉사과 같이 원했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도전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와 해보고 싶었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전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좀 더 학업에 집중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청관장학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관장학회가 제게 주시는 장학금은 단순한 ‘돈’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발판입니다. 청관장학회가 저에게 보내 준 믿음에 감사하며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리교육과 16학번 이수진 드림

■ 사범대학 신년교례회



지난 1월 2일(화) 모교 76동 두레미담에서 사범대학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학장단, 교수 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례회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구성원들끼리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새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즐거운 만남의 장이 되었다.

■ 2018년도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규 교원 워크숍 개최



2018년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규 교원 워크숍이 지난 2월 20일(화) 11동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성낙인 총장이 축사와 함께 신규 교원 2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지리교육과 김종욱 교수와 부설여자중학교 이재엽 교장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 후에는 신규 교원 교류의 장이 진행되었다. 2018년도 신규 교원은 4개의 사범대학 부설학교(부고 9명, 부중 6명, 부여중 4명, 부초 3명)에 배치되었다.

■ 2018학년도 1학기 관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2018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관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월 21일(수) 오후 2시 모교 교육정보관 101호에서 개최

되었다. 이기례 관사장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과 김찬중 사범대학 학장의 축사가 있었다. 2018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관사장학생은 총 23명이다. 황하(교육학과) 외 17명의 외국인 장학생은 앞으로 1년간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송창경(국어교육과) 외 4명의 한국인 장학생은 한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 김희백교수 사범대학 제37대 학장 취임

지난 2월 24일자로 김희백(생물 75) 교수가 사범대학 제 37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새로 구성된 학장단으로 교무부 학장에 불어교육과 박동열(84) 교수, 학생부학장 체육교육과 이용호 교수, 기획부학장 국어교육과 민병곤(86) 교수가 임명되었다.

■ 정년교수 퇴임 환송연



지난 3월 20일(화) 사범대학 정년퇴임 교수(영어교육과 신문수 교수, 지리교육과 김종욱 교수, 교육학과 Lynn Ilon 교수)의 환송연이 개최되었다. 김희백 학장이 그동안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퇴임 교수들은 정든 교정을 떠나는 아쉬움이 담긴 소감을 공유했다. 이어 환송연에 참석한 동료 교수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으며 환송연이 마무리되었다.

■ 2018년 세계 대학 평가 QS 랭킹 체육교육과 10위

지난 2월 28일(수)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8 세계 대학 평가 학과별 순위'에서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세계 10위에 랭크되었다. 지난해 7위에 이어 2년 연속 'TOP 10'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학과는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유일했다.

■ 교육학과

◆ 2018년도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지난 1월 6일(토) 모교 소담마루(구 동원생활관)에서 2018년 교육학과 동문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동문회와 학과가 함께 주최하는 이 행사는 매년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동문들이 서로 만나 소식을 나누는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에도 여러 원료교수 및 각계각층의 동문, 대학원생에게 이르기까지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 국어교육과

◆ 2018년도 신년하례식



2018년 국어교육과 동문회 신년하례식이 지난 1월 3일(수) 오후 5시에 서울 코리어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은전(母科 명예교수) 동문을 비롯하여 총 78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여느 해보다 많은 동문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선후배 동문들의 새해 덕담을 들은 뒤 정기 총회를 진행하였고, 친교 행사에서는 여러 동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향해 나아간 뜻 깊은 시간이었다.

■ 2018년 1학기 국어교육과 장학금 수여식

2018년 1학기 국어교육과 장학금 수여식이 3월 6일(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故 이응백 동문의 난대장학금과 故 정영숙 동문의 연지장학금, 故 이상의 동문의 운정장학금, 故 김광해 동문의 호석 장학금, 母科 명예교수 구인환 동문의 운당장학금, 이창득 동문과 이영락 동문이

각각 기탁한 기금으로 교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수여되는 다다장학금과 이영락장학금, '동문장학금' 및 '국어교육과 60돌 동문장학금'이 수여된 이 자리에는 수상자와 조연희 동문, 이창득 동문, 경종록 동문회 부회장을 비롯한 母科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 영어교육과

◆ 2018년도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



지난 1월 17일(수)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30여명의 영어교육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동문들은 지난 2년간 영어교육과 동창회를 헌신적으로 이끈 이재희 17대 회장(74, 전 경인교대 총장)과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18대 동창회 새 집행부 임원으로 박준언 신임 동창회장 (77)을 비롯해 심창용 총무(87), 이진화 재무(91), 정정혜 감사(77)를 선출하였다.

■ 생물교육과

◆ 2018년도 신년교례회



2018년 1월 8일(월) 더프리마베라에서 정해문 명예교수를 비롯한 은사님들과 함께 여러 동문들이 무술년 황금 개띠의 기운을 나누는 신년교례회 겸 총회를 가졌다. 원로동문과 동창회장의 인사와 상호 간의 신년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생물교육과의 현황 보고, 학부 생활 및 동아리 소개, 졸업 30주년 기념 83학번의 발전 기금 및 장학금 전달, 신임 김영수 회장과 총무 소개, 덕담 및 건배 제의, 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생물교육과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한 해를 건강하게 맞는 비법

- 기지개를 켜자 -

이 동 식 (영어 72)
언론인

조선왕조 22대 군주 정조는 영명한 군주로서 평생 백성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공부도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일찍이 옛 시를 읽다가 100세를 산 노인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100세 가까이 되는 노인 세 분이 김을 매면서 자신들이 수(壽)를 누리게 된 까닭을 묻고 답하는 장면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간다.

“첫째 노인이 나와 대답하기를 ‘우리 집 마누라 박색이라 오.’, 다음 노인이 나와 대답하기를 ‘저녁 일찍 자리 들되 머리는 내놓지요.’, 셋째 노인이 나와 대답하기를 ‘음식 먹기 절제하여 배 채우지 않았지요.’ 하였다.”

말하자면 한 분은 여색을 멀리함으로써 정기(精氣)를 굳힐 수 있었고, 한 분은 접생을 잘 함으로써 나이를 늘릴 수 있었으며, 또 한 분은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병을 없앨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조는 이 세 노인의 말이 마음에 들어 이 말을 벽에 적어놓고 늘 쳐다보곤 했다고 한다.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이의 소망이다. 여기에는 왕후장상이든, 빈천한 시정잡배든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정조도 그런 장수법에 당연히 관심이 있었는지 정조가 쓴 ‘홍재전서(弘齋全書) 일득록(日得錄)’에 위의 내용에 이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대저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의지하게 하려면 불(火) 기운을 내려가게 하고 물(水) 기운을 올라오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지극히 이치에 맞는 말이다. 매양 취침하기 전에 두 발바닥의 가운데를 마주 문질러 비비면 기운이 저절로 퍼진다. 내가 밤마다 시험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힘이 드는 듯했으나 오래도록 계속했더니 신통한 효험이 있었다. 접대 듣자하니,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후손인 유명위(柳明渭)도 이 방법을 쓴다고 했다.”

이러한 건강법 가운데 특이한 것은 머리를 자주 빗으라는 것이다. 정조는 여기에 관해서도 보고 들은 바를 말해준다;

“젊었을 적에 ‘매일 빗질을 하라.’고 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년에 들어서 비로소 빗질을 하기 시작했더니, 머리와 시력이 맑고 시원해졌으며 잠이 저절로 왔다. 섭생가(攝生家)들이 머리를 빗질하는 것은 언제나 매일 120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어떤 이는 말하



기를, ‘머리 빗기를 매일 천 번씩 하면 머리칼이 세어지지 않는다.’ 한다. 또 ‘황정경(黃庭經)’에 이르기를, ‘머리칼은 응당 많이 빗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 가운데 매일 빗질할 수 있는 이가 드문 것은 바로 일찍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이러한 머리빗기가 불가능하지만 머리를 자주 감아주거나 머리의 모근(毛根)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마찰해주면 같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보다 앞서 선조 때 대제학을 지낸 택당(澤堂) 이식(李植)도 옛 사람들의 수련법 가운데 후손들에게 권장할 만한 것을 골라 놓았다;

“우선 새벽에 일어나 몸속에 있는 탁한 공기를 내뿜고 코로 새 공기를 들이마시기를 세 번씩 한 다음 아래윗니를 서로 맞부딪기를 26번 정도 하고, 다음으로는 눈두덩을 엄지손가락으로 27번 문지르고,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콧등을 대여섯 번 문지른다. 다음엔 귓바퀴 안팎을 몇 번 문지르고 나서 얼굴을 두 손으로 문질러 더운 기운이 나도록 한다.”

이러한 이식(李植)의 건강법은 홍만종(洪萬宗 · 1643~1725)의 책 ‘순오지(旬五志)’에 실려 있다. 홍만종은 또 조식법(調息法)이라는 호흡운동법과 함께 탄진법(吞津法)을 알려주고 있다. 탄진법은 혀바닥 위에서 생기는 침을 씹어서 삼키는 것인데, 침을 혀바닥 위에 생기게 하는 방법은 혀를 구부려서 움직이기만 하면 저절로 침이 생기니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이 법을 한동안 계속해서 몸에 배도록 하면 그만두려야 그만둘 수 없고 또한 배가 고프거나 피로할 때에도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한다.

특히 입안에 생기는 침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약이라고 하겠으니, 퇴계 이황 선생도 명나라 주권(朱權)이 쓴 건강양생비결을 다시 정리해 펴낸 '활인심방(活人心方)'에서 두 손으로 발바닥을 잡고 단정히 앉아서 입속을 혀로 잘 저어주어 침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꿀꺽 삼키는 것을 세 번씩 아홉 번을 하면 온몸의 맥이 스스로 조화롭고 고르게 된다며 침을 많이 삼키라고 권하고 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陶淵明)은 '사시(四時)'라는 시에서 '춘수만사택(春水滿四澤)', 곧 봄에는 사방의 연못에 물이 차고 넘친다고 표현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여서 몸에 물이 돌아

야 건강해진다는 것이리라. 산하엔 이미 봄기운이 무르익고 얼었던 대지에는 맑은 생명수가 넘치고 있다. 이런 때에는 이 불을 박차고 나가서 선조들의 건강, 양생법을 한 번 해볼 일이다. 그리 힘들 것도 없어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숨쉬기와 아랫니 윗니 맞부딪치기, 눈두덩이 문지르기, 귓바퀴 문지르기 등이야 무슨 힘이 들겠는가. 그리고 자주 침을 만들어 삼키고 때때로 손가락 끝으로 머리뿌리를 문질러 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돼 머리에 몰린 노폐물도 씻어지고 기운도 좋아질 터인즉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좋은 시절엔 우선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키우는 것이 올 한 해를 즐겁게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동창회 연회비의 변천

이 시 우 (국어 71)
동창회 상임부회장

우리 동창회 운영의 기본 재원은 동문들이 내는 연회비와 동문들의 찬조금과 연남동 동창회관의 임대료 수입이다. 그런데 임대료 수입은 현재 임대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여 그 수입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축소되고 있다. 반대로 운영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우리 동창회의 연회비 변천 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 동창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동창회보 최고본(最古本)은 제5호(1970.05.20)이다. 그 동안 결번 상태인 1,2,3,4호를 찾는 광고를 여러 번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제5호에 수록된 '동창회 회칙'에 따르면, '본회 회원의 연회비 및 입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단 신회원은 입회금 3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연회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동창회비 납부현황에서도 소속 기관별로 납부한 회원의 숫자만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제10호(1972.12.25) '연회비 납부 촉구'란에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300원을 시·도지부를 경유하여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연회비는 300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회비가 1973년에는 500원으로, 1976년에는 1,000원으로, 1979년에는 2,000원으로, 1981년에는 3,000원으로 인상되었고, 1983년 총회에서 는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1988년 총회에서는 10,000원으로, 1996년도에는 2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30,000원으로 인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회비의 인상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였다. 또 2006년 11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평생회비 제도를 도입하여 평생회비를 200,000원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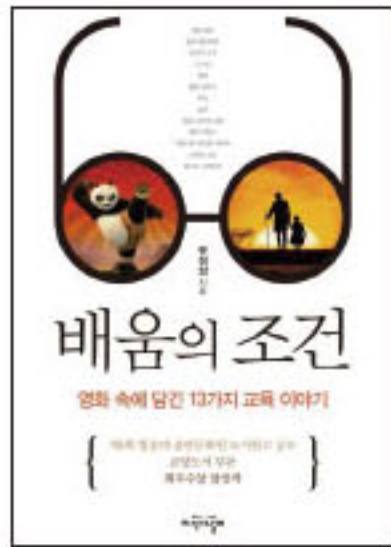
1970년 300원으로 시작한 연회비가 현재 30,000원까지 인상되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회비 수입을 비교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회비가 1만원이었던 1990년도 결산서를 보면, 회비 수입이 총 1,622만원(일반회비 1,466만원, 입회비 156만원)인데, 연회비 3만원인 2015년 결산서에서 회비 수입은 총 1,320만 1천원(일반회비 450만 1천원, 임원회비 510만원, 평생회비 360만원)이니, 그 동안 회원들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배님들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많은 동문들이 연회비를 해마다 내주시고 있다. 동문 중에는 평생회비를 이미 내셨음에도 평생회비를 또 내시거나 해마다 연회비를 보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장학금으로 기부받기도 한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회비를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뜻이라면서 해마다 잊지 않고 회비를 보내 주시는 손자, 손녀도 있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2017년도의 회비 수입은 995만원이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회비 수입을 1,270만원으로 잡았다. 금년에는 여러 동문들의 협조로 초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창회 조직 및 임원명단

위 조직은 동문님들의 동창회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정보 중심으로 2018년 4월 30일 현재 잠정적으로 추대한 인사들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동문님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갱신하여 앞으로 자문위원, 이사님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동문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직	성 명
명예고문	김종필(교학) 정범모(교육45) 이희호(교육46)
수석고문	정원식(교육48) 강신주(사회51) 장충식(역사51) 최용준(수학61)
상임고문	이상주(교육56) 임향순(수학60) 변주선(영어60) 이규택(교육61)
고문 (전회장단 및 공헌인사)	최태상(역사53) 이찬교(교육55) 신동일(체육54) 김신일(교육59) 허현호(수학67)
협동고문 (전·현 사대학장)	이돈희(제20대) 이원순(제22대) 박용현(제24대) 김대행(직무대리) 황정규(제25대) 황재기(제26~27대) 조창섭(제28~29대) 윤정일(제30대) 조영달(제31~32대) 김종욱(제33~34대) 전태원(제35대) 김찬중(제36대) 김희백(제37대 현 사대학장)
자문위원 (국회의원) (총·학장) (기관장) (저명인사)	김영의(사회59) 박영희(수학54) 박종세(교육55) 김미자(수학56) 김필수(역사57) 강호봉(수학58) 김옥진(생물58) 정완호(생물58) 김학천(독어59) 이연섭(교육59) 권순용(교육61) 류길자(교육61) 박성수(교육61) 이상진(화학61) 이영수(교육61) 임동호(교육61) 장언효(교육61) 김경수(국어63) 이원우(교육63) 고영희(가정64) 서한샘(국어64) 이종재(교육64) 최하경(독어64) 이종승(교육65) 최기숙(체육65) 이규석(지학66) 김태완(교육67) 문용린(교육67) 주복남(영어67) 최현섭(사회67) 오만석(교육69) 유자효(불어68) 이종각(교육68) 이찬승(수학69) 정진곤(교육69) 허 숙(교육69) 권재술(물리70) 심우엽(교육70) 서범석(교육71) 안상수(체육71) 원혜영(역사71) 전택수(사회71) 고형일(교육72) 곽창신(영어72) 송광용(교육72) 진동섭(교육72) 정석구(교육74) 김성태(영어75) 안양옥(체육75) 천세영(교육75) 심규선(국어76) 심상정(역사78) 백순근(교육80) 윤여각(교육81) 김재춘(교육82) 성기선(국어82) 안민석(체육82) 박경미(수학83) 윤건영(윤리83)
운영자문 위원	류천근(교육60) 김창철(교육60) 김영애(생물64) 이시우(국어71)
회 장	곽병선(교육66)
감 사	신정숙(화학67) 설경수(국어81)
협동 부회장	이병석(수학65) 권치순(지학68) 박영석(가정68) 성기훈(체육71) 정문용(독어72) 김영수(생물73) 김경희(사회74) 심현각(수학74) 김성열(교육75) 이봉지(불어75) 김병혁(역사76) 김선주(물리76) 이준순(국어76) 기근도(지리77) 박준언(영어77) 임규형(화학79) 윤건영(윤리81)
본부 부회장 (상임)	상임-이영만(화학66) 총무부-이병호(영어70) 창조기획부-박성익(교육66) 조직부-김경희(사회74) 사업부-목창수(생물66) 문화부-김범기(물리66) 대외협력부-김득호(화학77) 홍보부-전경하(독어87) 출판부-최광락(불어77) 여성부-김혜경(생물70)

조 직		성 명
본부이사		유종호(독어70) 노희방(지리73) 신병찬(수학77) 채현구(체육78) 심중섭(화학79) 김영호(사회80) 김선관(체육87) 손영실(사회98)
이사	경영사강	이은신(45졸)
	교육학	김영진(51) 김선양(53) 이동호(59) 유덕준(60) 황채호(61) 이순권(62) 노옥섭(66) 서정화(66) 한성권(66) 황인창(66) 고필곤(68) 강경석(69) 박부권(69) 강남준(70) 김성기(70) 김계현(72) 김두정(72) 나일주(72) 이재신(73) 김성훈(74) 왕한신(74) 이성호(75) 조용환(75) 김광하(76) 김영화(76) 김재웅(76) 박철홍(76) 우용재(76) 박병기(77) 송기창(77) 왕경수(77) 이원휘(77) 차원경(77) 황규호(77) 서혜경(78) 김창대(79) 정수현(80) 김영철(80) 한승희(80) 김원찬(81) 강경석(82) 문무경(82) 임철일(82) 김동일(83) 배성근(84) 손민호(86) 이수정(90)
	국어	김상준(48) 구인환(50) 정우상(53) 전성탁(54) 박찬구(55) 정귀생(58) 이상우(61) 김영수(70) 이종문(76)
	영어	손종극(55) 이정희(56) 오경자(60) 강의정(61) 김종원(61) 이익환(64) 최영자(65) 정정호(68) 이동식(72) 김남훈(73) 이영식(74) 이재희(74) 이회주(74) 안성호(76) 김선웅(78) 황종배(82) 심창용(91)
	독어	공수영(70)
	사회	최영목(49) 신용래(52) 성완용(63) 김병무(64) 백종면(75) 주영섭(76) 차혁성(79) 김관복(81)
	역사	오성종(58) 김동운(64) 김홍섭(73) 민병관(79)
	지리	국해웅(63) 최운식(63) 주경식(68) 박제동(70) 김온호(79) 김남형(80) 이선경(83) 송미숙(87) 이훈정(87)
	윤리	윤영돈(90)
	수학	박영삼(57) 이성하(57) 이종락(58) 이경배(61) 박규홍(69) 지은숙(69) 임성근(70) 김성자(71) 윤오영(77) 오은경(82)
	물리	이용현(53) 김홍우(54) 윤재봉(56) 조길준(56) 이노연(58) 이승우(61) 정근화(63) 강위생(68) 최돈형(68) 장재열(71) 박문수(74) 박완규(80)
	화학	장병덕(53) 김동길(57) 최병호(57) 김기광(64) 남창열(65) 최상규(65) 신일운(66) 이영애(67) 오두환(69) 허성일(71) 홍지준(74) 김봉래(85)
	생물	김재호(53) 윤백중(55) 최병주(56) 김충언(58) 이정옥(58) 구성희(59) 이철자(60) 조청자(61) 엄영주(66) 방재욱(68) 김재영(70) 고영현(71) 임용우(77) 최낙준(61)
	지화	백정일(60) 조혜경(60) 양교석(61) 오종실(68) 윤석원(68) 김경옥(75) 박병훈(75) 최승욱(82)
	체육	임번장(60) 최귀남(66) 송진숙(70) 최성식(73) 유서영(74) 박창호(75) 신종현(81) 조용훈(82)
	가정	임공희(64) 이해숙(68) 정창용(66)



유영상(교육 73, 서울대학교) 동문이 저술한 '배움의 조건'이 한국대학출판협회의 '2017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1971년 설립된 한국대학출판협회는 전국 65개 대학의 출판 담당 부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유 동문은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평생·직업교육혁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동일(교육 83, 서울대학교) 동문이 한국교육심리학회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교육심리학회는 1967년 창립하여 50여 년간 교육학의 학문적 발전과 교육현장을 위한 학습컨설팅을 주제로 전문 학술지, 학술대회, 현장기반의 워크숍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변주선(영어 60,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전 사대동창회장) 동문이 지난 3월 23일 한국걸스카우트 지원재단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변주선 동문은 현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걸스카우트 총재와 전 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영배(영어 60, 국민대 명예교수) 동문이 방대한 사료와 고고학 연구 성과를 총망라해 켈트인의 총체를 한 권에 집약시킨 '켈트인, 그 종족과 문화'를 출간했다. 이 책은 영미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호기심을 가질 법한 켈트인과 언어 및 문화를 한국 최초로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서이다.



이익환 (영어 64,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동문이 그동안 남다른 헌신과 사랑으로 동문들 간의 친목과 결속을 돈독히 해온 공로로 지난 1월 서울대 총동창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동식 (영어 72, 전 KBS해설실장) 동문이 '친구가 된 일본인들(나눔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일제 시대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일본인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쏟고 많은 도움을 준 선한 일본인

들도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선한 일본인들을 추적, 발굴했다.



허연행(영어 77, 목사) 동문이 지난 1월 8일 미국 뉴욕의 대형교회인 프라미스 교회(Promise Church)의 담임목사로 추대되어 교민들을 위해 활발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기태(불어 59, 스타인터내셔널 통역번역대표) 동문이 지난 2월 2일 동원산업(주) 초청 특별 세미나에서 '원양어업은 영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김재근(사회 2002) 동문과 배화순(사회 2003) 동문이 지난 12월 31일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다.



임혜원(화학 81, KIST 책임연구원) 동문이 지난 1월 9일 한국뇌신경과학회의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오는 8월에 개최될 '2018 한국뇌신경과학회 정기학술대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뇌과학 발전 전략' 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국뇌신경과학회는 1997년에 창립되었고 현재 1,5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뇌과학 분야 학회이다.



김찬종(지학 76, 모교교수, 전 사범대학 학장) 동문이 최근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과학교육학회 제73회 정기총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찬종 교수는 2019년 3월 정식으로 학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김혜지(교육 99) 동문이 지난 3월 2일자로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신재현(교육 99) 동문이 지난 2월 1일자로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특수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강민수(교육 2011 박사졸) 동문이 지난 1월 1일자로 수원여자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수정(교육 2014 박사졸) 동문이 지난 3월 1일자로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동창회비 납부안내

동문간의 교류 지원, 친목 도모, 동호회 활동지원, 각과 동문회 같은 동창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동문 모두의 바램입니다. 이는 동문들의 애정과 응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비의 납부가 튼튼한 동창회의 초석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동창회비를 납부하여 탄탄하게 발전하는 동창회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곽병선)

※ 문의처 : 동창회 Tel. (02)720-8116 / 8120

회 장	: 2,000,000원
고 문	: 300,000원
자문위원	: 200,000원
부회장·감사	: 300,000원
이 사	: 50,000원
일 반	: 30,000원
평생회비(1회)	
이 사	: 400,000원
일 반	: 200,000원

회비 납부자 명단

(2018. 01. 01 ~ 03. 31)

평생회비 (20만원)

신상민(불어 75)

임원회비

곽병선(교육 66)	200만원	구성희(생물 55)	5만원
이시우(국어 71)	30만원	최병주(생물 56)	5만원
이상주(교육 56)	20만원	엄영주(생물 66)	5만원
김상준(국어 48)	10만원	이원순(역사 45)	5만원
김영진(교육 51)	5만원	정주섭(영어 52)	5만원
구인환(국어 50)	5만원	손종극(영어 55)	5만원
전성택(국어 54)	5만원	최안기(지리 70)	5만원
정귀생(국어 58)	5만원	최병호(화학 57)	5만원

일반회비 (3만원)

〈경역사심〉	이대규(57)	이석주(60)
함희동(46졸)	김수형(61)	김경수(63)
〈사예이〉	현정훈(2004)	
서윤수(45)	〈독어〉	
〈가정〉	임상순(60)	
민혜식(52)	〈물리〉	
〈교육〉	김홍우(54)	우상혁(56)
이기화(53)	안규철(54)	이기종(56)
권 균(61)	황채호(61)	탁원령(67)
양덕배(61)	〈불어〉	
	표진미(66)	
〈국어〉	〈사회〉	
한원영(49)	이병선(51)	주봉노(55)
박종대(51)	서부원(53)	이호상(57)
이현택(53)	박찬구(55)	김병무(64)

〈생물〉

이범훈(48) 홍인기(54)
윤백중(55) 곽동순(63)
정규범(70)

〈수학〉

조병완(53)

〈역사〉

이세현(55)

〈영어〉

최길순(49) 이희명(49)
황적륜(54) 김혜원(55)

김준한(61) 김종원(61)
박현수(76)

〈지리〉

박성호(55) 김용복(57)
최석진(63) 장 호(66)

〈지구과학〉

봉정모(72) 김태희(2005)

〈체육〉

정승용(49) 이강법(57)

〈화학〉

이현순(53)

정기총회 찬조금

장총식(역사 51)	100만원	변주선(영어 60)	50만원
임향순(수학 60)	20만원	윤웅섭(수학 61)	20만원
이영수·유길재(교육 61)	20만원	김영의(사회 49)	10만원
박찬구(국어 56)	10만원	황선용(사회 57)	10만원
정근화(물리 63)	10만원	이병호(사회 70)	10만원

등반대회 찬조

곽병선(교육 66) 20만원 / 정근화(물리 63) 10만원
김성기(교육 70) 10만원 / 변주선(영어 60) 오렌지 2box
곽병선(교육 66) 찹쌀떡 및 바나나 90세트
문용린(교육 67) 필립스핸드블랜더 외 13점 / 사범대학 무료주차권 40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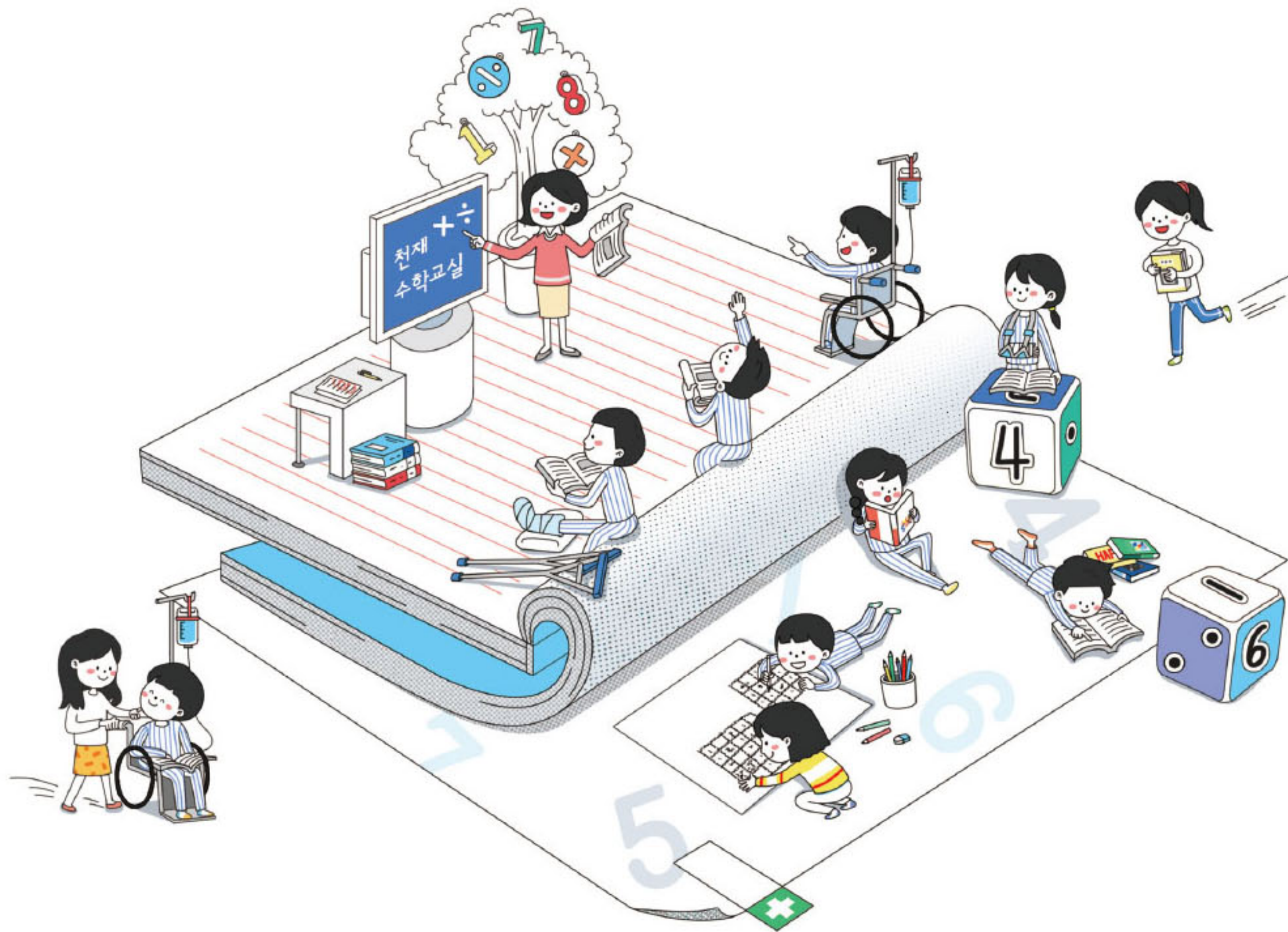
..... ♥ 찬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원고모집

동창회보에 게재할 동문들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주제 : 자유(시, 수상, 여행기, 동호회 활동기, 주변 잡기등)
- 원고마감 : 수시
- 원고매수 : 한글파일 10폰트 A4용지 1장~2장 이내
- 제출처 : 우편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충정로, 피어리스아파트)
E 메일 snueaa@hanmail.net



“공부를 넘어 희망을 나눕니다”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도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고
 책을 읽고 싶어도
 맘껏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천재교육의 학습봉사단.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큰 용기로 이어지길 바라며
 천재교육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의 뜻을 실천하며
 세상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이 환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에서
 주 1회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 수업 진행

☉ 착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동행, 천재교육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교재 지원 / 장학금 후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데이터 지원 / 고도 약시를 위한 교과서 및 학습교재 개발